

#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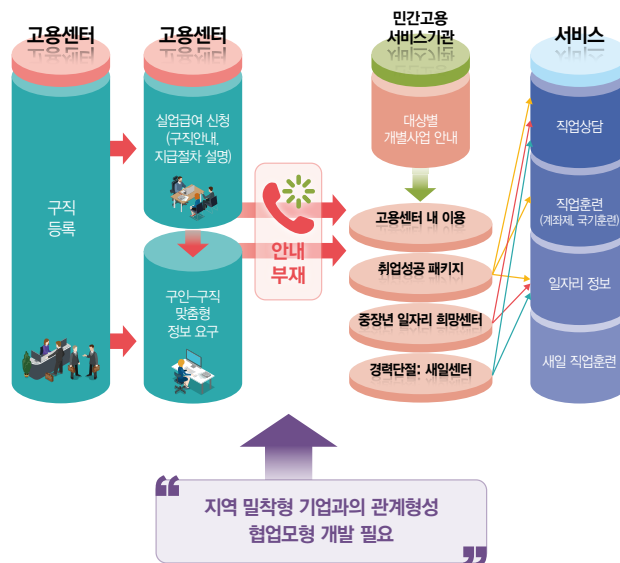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고용서비스 전략 연구 과제책임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26 / e-mail: eunjin5@kwidimail.re.kr)

## 여성 취업을 위한 지역 고용서비스의 전략

### 초 록

- 본 연구는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고용시장의 방향과 고용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적 형태의 고용서비스의 내용 발굴 및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새로운 미래 여성고용서비스 정책에 도입하고자 함.
- 지역 내의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일자리 센터 등 고용과 관련한 주요 전달체계의 서비스 내용 분석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 새일센터, 지자체,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 협업 모형을 개발하였음.
- 여성의 실업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을 통해 여성의 지속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현황과 결과를 분석하였음.
- 협업 모형 실험을 통해 여성 취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디자인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고용센터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업 모형



## 1. 배경 및 문제점

- ☑ 여성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포괄적인 의미는 고용알선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등 여성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고용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용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의 내용 발굴 및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새로운 미래 고용정책에 도입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현재 고용서비스 기관들의 여성취업을 위한 협업의 문제점과 고용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포함하여 총 1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인터뷰에는 고용센터 팀장, 지자체 취업담당팀장, 새일센터 상담원, 일자리센터 상담원, 고용센터 상담사, 노사발전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주하는 다양한 공공·민간기관들의 취업담당자들이 참여했음.

- ▶ 민간은 영리·비영리로 나뉘어 영리기관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민간위탁기관들 5기관이 참여했고, 비영리는 새일센터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위탁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담당자 등이 참여했음.

### ☑ 분절적 고용서비스의 문제

-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구직자들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대상별 차이가 있지만 운영체계에서 분절적인 움직임이 발견됨으로써 대상자들이 유기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 분절적 서비스의 폐해는 원하는 정부정책의 서비스는 상당히 많으나 구직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생과 협업 또는 분업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적 행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창구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절차적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구직활동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차적 상담서비스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고용센터에서는 매우 어려움

- ▶ 분절적 서비스의 폐해는 원하는 정부정책의 서비스는 상당히 많으나 구직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 결과적으로 제도와 사업은 정비되어 있으나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focal point 또는 hub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발생하며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부기관으로 분업되거나 협업되지 못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청구에서 고용서비스 가이드를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내자에게 인도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도 이 과정이 공백으로 남아 있음.

### 💡 워크넷 상에서의 구인-구직의 문제점: 무차별 정보의 양산

- ▶ 워크넷의 구직정보는 무차별성임. 반면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은 민간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사이트에 더 구인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음. 고학력 구직자들이 공공직업 알선보다, 민간 구인구직알선기관에 더 신뢰를 갖는 것은 무차별 정보를 쏟아내지 않기 때문임. 공공기관에서 알선성과가 개인의 성과로 된 이후 구인정보를 대상적 차별을 두지 않고 SNS,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쏟아내는데 이는 구직자로 하여금 구인-구직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이런 이유로 고학력 구직자들은 워크넷을 신뢰하지 않고 민간 사이트에서 맞는 정보를 찾고자 함.

### 💡 여성직업훈련의 실업자, 재직자 모두 여성들의 참여가 전체적으로 높지만 이는 여성실업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여성들이 훈련사각지대에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재직여성들이 사업주 훈련에 비교적 적고 계좌제에 더 몰리는 현상은 해당 여성들의 기업 내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 분석을 필요함.

## 3. 정책제언

### 💡 고용센터에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으로의 구직활동 연계: 고용센터 역할의 명확성(경쟁 관계인가, 상생관계인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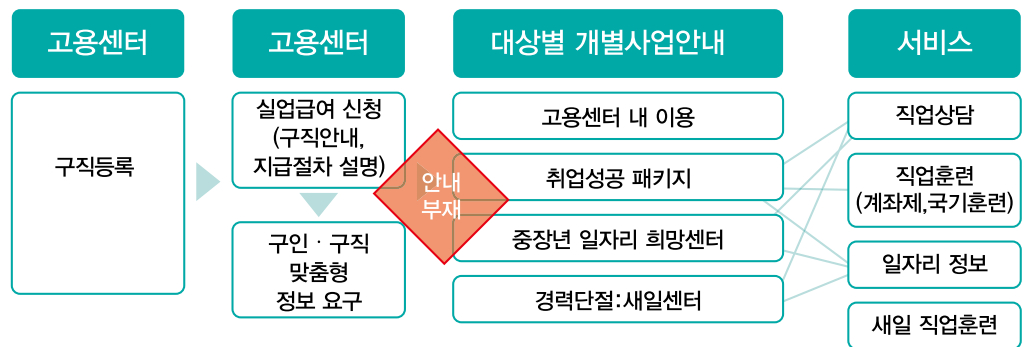
- ▶ 고용센터에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구직자를 배분 또는 이관할 시 얼마나 명확한 기준으로 구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준제시 필요. 여러 사업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평가에서 취업성고를 평가척도로 구분하는 현재 상황에서 고용센터는 사업의 성격, 대상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기관에 구직자를 배분하는 기초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고용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함.

### 💡 지역고용서비스의 매카로씨의 고용센터 역할 모형

- ▶ 고용센터는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임. 그러나 그 간 고용센터의 역할은 실업급여와 관련한 업무에 상대적으로 치중된 부분이 있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민간기관들이 고용서비스 관련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모형으로 개편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들과의 관계정립 및 이들을 도와주고 견제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 재정립 필요

#### 📍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구체화된 협업 사례 모형: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 ▶ 새일센터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취업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는 기관임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어느 단계부터 새일센터가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것인지,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어떤 수준의 구직자를 고용센터와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 우선 고용센터와는 첫째, 단순서비스를 어디서 할 것인가? 둘 다 이를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무차별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셋째, 새일센터는 현재의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할 것인가? 통합적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을 다른 고용서비스로 구직자를 이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그림1〉 고용센터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업 모형

#### 📍 고용센터와 일자리 센터와의 관계

- ▶ 일자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된다.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중소 기업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디자인하도록 지역 밀착형 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협업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4. 기대효과

#### 📍 지역 내 여성취업 활성화 및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

#### 📍 여성을 둘러싼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들의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실업급여과